



— お品書き —  
GRAND MENU  
메뉴

「打ち立て」  
「切り立て」  
「茹で立て」 慎

うどんの「コシ」と「ノビ」は相反する。  
その中間を探求した、店主こだわりの麺。

"Made fresh, cut fresh, and boiled fresh"

The owner has striven to develop the best bite with noodles that strike  
the balance between firm and soft.

"신선한 반죽! 즉석에서 뽑은 면! 막 삶아낸 면!"

우리 가게는 쫄깃한 면발로 여러분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うどんをご注文なさらないお客様は、席料 **950円** 頂戴いたします。

**There is a 950 yen charge for those who do not wish to order Udon.**

우동을 주문하지 않은 손님께 좌석요금으로 **950엔**을 받고 있습니다.

**CASH ONLY**

**Please pay together (for covid19 prevention) Thank you.**